

김밥·라면 다음은 튀김 축제인가

에스프레소



이 동 수

청년정치쿠루 대표

삿포로에서의 1년은 제법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위경홀리데이를 떠나며 단 지 더운 게 싫다는 이유로 일본 열도 최 북단 홋카이도에 있는 삿포로를 택한 것이었지만, 그 1년 동안 홋카이도의 매력에 푹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관광과 농업이 주 산업인 홋카이도에서는 크고 작은 축제가 끊이지 않는다. 대자연의 은혜로 먹고사는 홋카이도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땅과 바다에 감사하고 일상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보겠나 하는 생각에 삿포로 인근 소도시들의 마쓰리(축제)들을 찾아다니곤 했다. 벌써 10년 전 일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은 후라노시(市)다. 삿포로에서 기차로 죽히 3시간은 가야 하는 후라노는 인구 2만만의 작은 도시다. 관광객들에게는 드넓은 라벤다밭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후라노의 진짜 매력은 해소 마쓰리(배꼽 축제)에 있다. 후라노시는 스스로를 '홋카이도의 배꼽'이라 칭한다. 홋카이도 정중앙에 있기 때문이다. 배꼽이라는 축제 콘셉트에 여기에 착안했다. 해소 마쓰리 참가자들은 상의를 들추고 익살스러운 그림이 그려진 배를 드러낸 채 시가지를 행진한다. 수천 명이 자신의 배를 내놓고 음악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이 '배꼽의 행렬'을 보려고 인구 2만 소도시에 매년 관광객 7만여 명이 몰린다.

해소 마쓰리에서 특이한 인상이었던 건 인파의 구성이었다. 백발의 노인부터 초등학교도 안 갔을 꼬마들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자기 고장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후라노 시민들은 동네 이웃, 회사 동료, 학교

친구의 지방 축제 연 1170건 지역 소멸 시대 교육지책이지만 지역 먹거리만 잘 팔면 성공 축제인가 지역 공동체 결속이 더 중요하다

동창들과 팀을 이뤄 퍼레이드에 참여한다. 그들에게는 준비 과정부터가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인 셈이다. 삿포로에 사는 일본인 친구들도 어린 시절 부모님, 동네 어른들과는 축제에 참가해 눈 조각상을 만들었던 사실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지역 공동체는 그렇게 축제를 거처며 단단해졌다. 지역 축제라 하면 우리도 빠지지 않는다. 올해 열렸거나 열릴 지역 축제는 1170건. 지방자치제도가 막 시작된 1996년 412건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 축제는 지역 소멸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모으려는 교육지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도 최근 내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

김준의 맛과 삶 [215]

진도군 조도 고동무침

해가 낫아갈 무렵, 소 먹일 풀을 베어 땅에 가득 담고 물불이 줄었다. 그러다 지치면 '깡반'에 있는 돌 밑에 손을 넣어 '대사리'를 주었다. 아열 때 살았던 산골 마을에서 냇가물 깡반이라, 다슬기를 대사리라 불렀다. 다슬기는 지역에 따라 고고, 고동, 울갱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원한 다슬기 된장국을 먹고 난 후 바닥에 가라앉은 다슬기는 탱자나무 가시로 속살을 꺼내 먹었다. 진도군 조도면에 있는 작은 섬에서 그동안 잊고 지낸 어린 시절 기억이 소환되었다.

조도면은 150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도는 울기종기 새 떼처럼 섬이 모여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하조도에는 아름다운 등대가 있고, 상조도에는 많은 섬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다리로 연결된 두 섬은 조도

면 중심이다. 고동 무침을 만난 섬은 조도면에서도 아주 작은 소마도, 독거도, 맹골도 등이다. 인기척이 드문 소마도 골목을 거닐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 앞에 멈춰다. 그리고 까치발로 안을 훑어다. 고동은 삶는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커다란 솥을 걸고 한참 끓이는 고동을 삶는 중이었다. 당시 밥상에만 올리기에 너무 많다. 내친김에 집안으로 들어서서 고동을 시장에 팔 것 같고 묻자, '속살만 꺼내 반찬도 하고, 냉동 보관해 명절에 자식들 오면 주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저 많은 고동을 쪄라 얼마나 허리가 아팠을까.

조도면의 많은 섬에서는 고동이 자라는 해안을 '깡반'이라고 부른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조건대로 돌이나 갯바위가 많다. 이곳에서 돌미역, 우뚝가사리, 돌김, 톳이 자란다. 봄부터 여름



까지는 해조류를 뜯고, 가을에는 고동을 쪄는다. 해조류는 말려 시장에 팔았고, 고동은 삶아 반찬을 했다. 이들에게 깡반은 텃밭이었다. 바벌 때 텃밭에서 채소를 뜯어 얼버무려 상에 올리듯, 섬에서는 해조류를 뜯고 고동을 주워 반찬을 만들었다. 일 년 농사나 다름없는 돌미역을 채취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부추를 송송 썰어 고동 무침을 만들어 냈다. 마을에 크고 작은 일을 치를 때도 고동 무침은 단골이다. 이렇게 이용하는 고동은 대수리, 갯고동, 창고동, 팽이고동, 눈알고동 등 다양하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부통령 밴스, 팀, 머스크를 연구하라

달라진 트럼프 권력 구성... 《페이팔 Tech 네트워크》와 손잡다

김정은과 연애? 그럼, 우리도 일본처럼 (핵 보유 직전)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더 내고, 다음 요구하자

- ① 《한미 원자력협정》 개선
- ② 미 해군 함정 건조-정비 참여
- ③ 핵 추진 집수할 건조-공동 운영



▲ 슬라 축하행사에서 연설하는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은 (트럼프 4년 - 밴스 8년) 가능성을 벌써 거론 중. 대표적 스릴 스테이트이자 라스트 벨트인 오하이오주 하층 백인 출신 밴스는 (페이팔 네트워크) 최강 피터 라이 키웠다. 밴스를 전면에 내세운 팀과 머스크의 (페이팔 시대)는 ① PC(정치적 올바름) 주의 ② WOKE(좌파개념) 주의 ③ DEI(다양성-평등-포용) 주의 ④ 해체사

화문화도덕 규범) 주의가 도를 넘는 데에 강한 반발감을 갖고 있다. 그들은 또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불법 이민자 난민캠프를 오하이오 등 스윙주에 설치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 스윙주를 민주당이 독차지하는 것을 미국 민주당의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추대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 NPI 연합뉴스

트럼프 정부 핵심에 (Tech 우파) 침투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어떤 미국이 될 것인가? 트럼프는 그것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 표현했다. 이것을 단순히 (보수 *신보수 *극우화)라 넘겨버리기에는 심상치 않은 무엇이 있다.

주목의 초점은 부통령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40세,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 의원.

그의 바로 뒤엔 피터 팀(Peter Thiel)이 있다. (페이팔)과 (팔란티어) 창업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트럼프 2기)를 만든 장본인이다. 밴스는 2년의 변호사 생활을 접고, 팀의 벤처 투자회사 (미트럴 캐피탈)에서 일했다.

《페이팔 네트워크》의 정체는?

머스크-팀-밴스. 그리고 이들이 손잡는 트럼프 2세.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보수 정치+AI 기술산업+막대한 부(富)+국방과학)을 한데 엮은 (미래형 보수 우파)다.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다.

피터 팀은 말한다.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소련을 이길 수 있을까로 논쟁했다. 우리는 이겼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어떤 화장실을 쓸까를 놓고 죽자고 싸운다."

"우리는 후버 댐을 지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해냈다. 우주탐사를 했다. (이런 위대한 여정(旅程))을 또 열자는 것이다. (과거형 보수주의)와 다른 (미래를 선행(先取) 하는 우파)인 셈이다.

社 說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는데 석 달 만에 다시 0.3% 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6%)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OECD,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치보다 더 낮다. 수출이 회복됐지만 건설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부진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다. 가계 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3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는 등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로 낮춰 잡았다. 극심한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7%)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은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흑자가 적자 구조로 바뀌었다. 대

미 수출 비중을 늘려 21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 하지만 미국 수출마저 관세장벽에 막힌다면 경제성장 동력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KDI조차 이처럼 경기를 어렵게 보는데 불과 하루 전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찬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것이라고 해도 "가계 부채, 국가 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는 자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들의 상황 판단 자체를 의심케 한다.

경제의 근본 해법은 규제를 풀고 혁신 동력을 살리는 것이지만 민주당 벽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에 성장을 끌어 올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KDI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환율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다. 정부, 한국은행, KDI가 엇박자를 내지 말고 솔직하게 경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李 대표 재판부의 개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지난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그동안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다" "기록 검토를 못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자 재판장이 이를 개판한 것이다. 이날도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을 절반 정도밖에 못 봤다"고 했다.

사건 기록이 많으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은 증거 목록을 포함해 수십 권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이 됐다. 변호인들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기록 검토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2017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도 사건 기록이 방대했지만 기소된 지 한 달여 만에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아직 기록을 못 봤다는 이 대표 사건 변호인들의 주장은 재판 지연을 위한 핑계일 뿐이다.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시도는 이번이 아니다. 지난 7월엔 수원 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

중앙지법으로 옮겨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심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보름 만에 이 신청을 기각하자 이 대표는 다시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법에는 그런 이유로 사건을 재배달할 근거가 없다. 결국 재배달 요청도 기각됐지만 기록 검토를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왜 이러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벌어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부지사가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몰래 이런 일을 벌이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그래서 이씨는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검사를 겨냥한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그러더니 이젠 이 대표까지 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결국 법원이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11일 국회에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당총과 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던 9일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그날 민노총 주최 시위에서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려는 시위대를 막느라 경찰 105명이 부상당했다. 최근 몇 년 새 가장 많은 경찰이 다쳤다. 그런데도 야당은 오히려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 삭감을 위협한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집회 현장의 경찰을 보며 '1980년대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현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사전 신고·허가된 공간을 넘어 양방향 도로 9차로를 전부 점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여 전 차로를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은 경찰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노동자들과 충돌"하며 "(시위대의) 폭력을 유발"했다고 한다.

경찰이 민노총 집회에 세종대로 5차로만 허가한 것은 주말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였다.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시위대의 일상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를 위한 경찰의 기본적 통제와 질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위력 과시를 통해 판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찰의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원을 모두 삭감했고, 법무부 예산도 487억원 삭감했다. 반면 범법 예산을 올려줬다. 무슨 의미인지 누구나 알 것이다. 정치 시위에 민노총 만큼 도움이 되는 조직이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경찰이 불법 폭력을 막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